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/ 책임운영기관 국립수목원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총 2쪽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자	2022. 1. 7. (금)	담당부서	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
담당센터장	김재현 연구관 (031-540-8871)	담 당 자	조용찬 연구사 (031-540-8872)
자료제공	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김창준 연구사(changjunkim@korea.kr, 010-4524-2034)		

천연기념물 수달, 광릉숲 봉선사천에서 활동 포착

□ 산림청 국립수목원(원장 최영태)은 지난 3일 광릉숲을 관통하는 봉선사천에서 어린 수달 두 마리가 활동 중인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다.

○ 족제비과 포유류인 수달(학명: *Lutra lutra*)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며, 하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해당 생태계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취급된다.

□ 새해를 맞은 1월 3일 일몰 시간대에 포착된 광릉숲의 수달은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교량 아래와 하천의 얼음 구멍을 이용하여 활동 중인 비교적 작은 크기의 두 마리였으며 영상으로 촬영되었다.

□ 인근 주민과 국립수목원 직원들에 따르면 최근 광릉숲에는 과거에 비해 수달의 활동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하였다. 이에 앞서 작년 8월에는 광릉숲의 남양주시 관할 지역에서 큰 수달 사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.

□ 김재현 광릉숲보전센터장은 “인근 왕숙천에 서식하던 수달 개체들이 최근 증가한 친수시설로 인한 수변 식생 제거, 야간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증가 등의 이유로 사람이 거의 없고 은신처와 먹이가 풍부한 광릉숲으로 피난 온 것으로 판단된다”라며, “봉선사천을 따라 조성된 광릉숲길 등이 천연기념물 수달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첨부파일
1. 광릉숲 내 담비 이미지 2컷
2. 광릉숲 내 담비 동영상_국립수목원 공식 유튜브